

전남 다문화학생 1만명 시대... 교육지원은 '제자리'

해남·화순·고흥 등 146개교에선 비중 30% 넘어

베트남·필리핀 순...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차가워

전남이 올해 사상 첫 다문화학생 1만명 시대를 맞이한다. 전남의 다문화학생 규모는 지난 2013년 유치원·초·중·고교 통틀어 4900명 수준이던 것이 최근 4년간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올해 처음으로 1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다문화 학생 수는 2600여명이다.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유치원·초·중·고교 1387곳 가운데 다문화학생 재학 학교가 1180곳에 달하지만, 다문화학생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차갑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최근 펴낸 '전남 다문화교육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학생 수는 지난 2013년 4998명 ▲2014년 5994명 ▲2015년 7238명 ▲2016년 8316명 ▲2017년 9169명으로 매년 1000명가량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유치원생은 1332명, 초등학교생 5499명, 중학생 1272명, 고교생 1048명, 특수학교 학생 18명으로, 어린이집 원생까지 포함하면 올 4월까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 1만명은 초·중·고 학습편성 기준이 30명 수준

인 것을 고려하면 330개 학급을 꾸릴 수 있다.

전체 학생대비 다문화학생 비율 역시 2013년 2.40%이던 것이 지난해 4.0%(전체 학생수 22만명 수준)까지 올랐다.

다문화학생 수가 급증하다 보니 유치원을 제외한 전체 학교 834곳 가운데 146곳(초교 132곳, 중학교 14곳)은 다문화학생 비율이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해남군이 14개교로 가장 많았고 화순군은 13곳, 고흥군은 12곳, 순천시는 10곳, 나주시와 여수시 각각 9곳, 무안군 8곳, 신안·보성·강진·장흥군이 각각 7곳이다.

다문화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의 경우 국제결혼가정 부모 973명 중 550명의 출신국이 베트남이었고 다음으로는 필리핀 137명, 나머지는 일본·중국·몽골·태국 출신이었다.

하지만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지원은 제자리걸음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다문화 학생 실태 파악을 위해 꾸린 전문가협의회 참가자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이들은 "일부 학교에서는 다문화교육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학교도 있다", "다문화 담당교사가 관련교육을 이수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험 자체가 없다", "이중언어(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이 대외에 나가서 상급을 타거나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은 다문화학생을 받아들이지만 부모들은 이중적인 태도가 여전하다", "높은 지위나 권력이 있는 다문화학생들과는 잘 어울리라고 하는 등 부모들의 태도는 지위와 출신국,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매우 다르다", "원어민 강사를 초빙할 때도 유색인종보다 백인을 선호한다. 같은 영어라도 미국이나 영국인은 좋아하고 필리핀 등 동남아 교사는 기피한다"며 우리 사회의 배편어린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밖에 학부모와의 소통이 어려우니, 학부모 언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교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성폭력 의무연수처럼 의무교육과정으로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팻숍서 개 방치 79마리 폐죽음

생존한 80마리도 전염병에 걸려

천안서...동물단체 폭로로 드러나

충남 천안의 한 팻숍에서 개 79마리를 제대로 돌보거나 사육하지 않고 방치해 폐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이 동물단체 폭로로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의 한 팻숍에서 개 160여마리가 완전히 방치돼 그중 79마리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존한 80여마리는 이미 숨진 79마리 사이에서 발견됐다. 살아있는 개들은 오물 처리가 전혀 되지 않은 탓에 홍역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걸린 개들이 많았다.

동물자유연대와 천안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팻숍은 '사육요건을 보호하고 입양처를 찾아준다'면서 사육요건에게는 보호비를 받고 입양자에게는 책임비를 받는 곳이었다.

단체 측은 "개들에게 사료를 준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입주는 병에 걸린 개들만 위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입주를 천안 동남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조카 줄 세뱃돈조차 없어 고향도 못가고...안타까운 죽음

주식 실패 40대 숨진 채 발견

주식투자에 실패한 40대가 설 명절에 조카에게 줄 세뱃돈조차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45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모빌라에서 김모(41)씨가 옥실 앞에 숨져 있는 것을 김씨의 아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식탁 위에는 숨진 김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소주병 2개와 유서 등이 있었다.

숨진 김씨가 남긴 유서에는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아들이 잘 살아라"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최근 주식투자 실패로 크게 낙담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자신의 친형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김씨는 아내와 이혼 후 덤프트럭 운전 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허리 통증 등 건강이 악화돼 자신이 소

유하던 덤프트럭을 처분하고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에 투자한 돈은 대부분 손실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투자에 실패한 김씨는 지난 설 연휴에는 조카들에게 줄 세뱃돈조차 없어 고향에도 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이 없고 부검을 원치않는 유족의 뜻에 따라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영기자 yong@kwangju.co.kr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2명 지명수배

화산돈 37억원 횡령 혐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 돌산을 상포매립지 개발 과정에서 화산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개발업자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토지 개발업자 Y사 대표인 김모(48)씨와 이사 광모(40)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범인으로부터 발부발아 검거에 나섰다.

김씨 등은 2015년 7월 S토건과 상포지구 개발사업 계약을 하고 공영수면 매립지를 100억원에 사들여 이를 분할 매각한 뒤 대금 37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인은 횡령액이 일부 변제됐으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계속 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을 벌였으나 김씨 등은 소환에 불응하다 결국 잡혔다.

돌산을 상포 매립지는 1986년 S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다.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하다 2015년 Y사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이 다시 시작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넘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발견돼 이들은 소환했으나 잠적해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며 "상포지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여중생 2명 폭행·금품 갈취 20대 구속

여중생 2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2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폭행 등 혐의로 A(21)씨를 구속하고 B(17)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여중

생 C(14)양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일 오후 7시께 전주 한 지하주차장에서 또 다른 여중생 D(14)양 뺨을 때리고 몸에 비비탄 총을 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 2명은 병원

에서 상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행 경위를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7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모기 방역 미리미리 광주시 북구보건소 긴급방역반원들이 20일 두암동의 한 공원에서 해방기를 맞아 모기식처로 추정되는 공중화장실 정화조를 방역 소독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카파라치'에 걸린 배우 윤계상

○기수 겸 배우 윤계상(40)씨가 불법 튜닝(개조)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질 처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서초구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해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게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됐다는 것.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불법튜닝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검찰은 윤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경매물건 (추천)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감정:30억2천4백
최저:16억9천

*남구 주월동 (근린주택)
감정:4억5천3백
최저:4억5천3백

*남구 노대동 (상가건물)
감정:4억8천7백
최저:3억4천1백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2월초 개강)

1) 이론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2) 실전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3) 경매 평생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할실분
입찰부터 매매입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경매물건 추천

① 북구 신안동 (숙박시설)
감정가 17억8천7백 → 최저가 12억5천

②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가 39억2천2백 → 최저가 14억
토지:1105평 건물:1201평

③ 서구 마북동 (주택)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1백

[사무직 (여)경력 구할,]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추)대신경매

1) 남구 노대동(상가건물) 어린이집
감정:4억8천7백 → 최저:3억4천1백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호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1억4천4백 → 최저:1억4천4백

3)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감정 30억2천4백→최저 16억9천

4) 무안군 운남면 (노유자시설)
감정 9억 3천 → 최저4억 2천

5) 광산구 수원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

6) 남구 주월동 (근린주택)
감정 4억5천 3백 → 최저 4억5천3백

7) 광산구 장덕동 (근린주택)
감정13억1천9백 → 최저13억1천6백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가 5억4천7백 → 최저가 3억6백

9) 화순군 도곡면 천암 (숙박시설)
감정 38억7천 → 최저 17억3천

10)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근린시설)
감정 7억2천2백 → 최저 3억2천3백

11) 나주시 성북동 (근린주택)
토지:439평
감정:32억6천 → 최저:14억6천

A.P.T·주택·공장·토지(기타)

① 남구 진월동 한신 아파트 (31평)
감정 2억1천2백 → 최저 1억4천8백

② 서구 용암동 금호타운
감정 1억9천 → 최저 1억 3천

③ 서구 용암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36평)
감정 2억9천 → 최저2억

④ 남구 진월동 한신아파트 (34평)
감정 1억9천5백 → 최저 1억 3천6백

⑤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 6백

⑥ 서구 쌍촌동 현대아파트 (24평)
감정 1억5천8백 → 최저 1억1천

⑦ 서구 벽진동 (토지) 222평
감정 8천6백 → 최저 8천6백

⑧ 광산구 오선동 (공장)
감정 18억3천6백 → 최저 12억8천5백

⑨ 남구 양림동 (주택)
감정 2억6천7백 → 최저1억 8천7백

⑩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⑪ 광산구 박촌동 (토지)
감정 1억9천 → 최저5천5백

010-6670-9800 062)382-5500